

차 례

국외 출장 보고서

2012. 10

- 출장지역 : 일본 규슈 구마모토, 후쿠오카,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
- 출장기간 : 2012. 9. 23 ~ 9. 28
- 출 장 자 :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양진홍 연구위원

I. 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기간 및 지역	1
3. 출장자	1
4. 주요활동	1
5. 방문일정	2
6. 접촉인물	3
II. 주요 활동내용	3
1. 일본의 국유림 정책 및 산림테라피 제도	6
1) 일본의 국유림 정책	6
2) 일본의 산림테라피 제도	9
2. 규슈 산림관리국	19
1) 규슈 산림국의 개요 및 특징	19
2) 규슈 산림관리국의 정책	22
3) 레크레이션의 숲	25
3. 후쿠오카현청	30
1) 후쿠오카현 산림 개요	30
2) 임지개발허가제도	30
3) 산림환경세 제도	32
4) 죽림오너제도	34
5) 사사구리초 산림테라피 기지	40
4.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43
1) 기리시마시 산림테라피 기지	43

2) 기리시마 고원 국민휴양지	46
5. 미야자키현청	48
1) 미야자키현 산림의 개요	48
2) 산림환경세 제도	48
3) 미야자키현 산림종합이용시설	52
4) 미야자키현 산림테라피 기지 : 아야초를 중심으로	53
부록 1. 후쿠오카현 산림환경세 조례	59
부록 2. 후쿠오카현 죽림오너제도 서약서 예	62
부록 3. 미야자키현 산림환경세 조례	66
부록 4. 미야자키현 산림종합이용시설	68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일본의 산림 관련기관 및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레크레이션 산림, 산림테라피, 시민참가형 산림계획, 산림정비 등을 학습하고 사례를 심층 조사함으로써 국내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일본의 국유림관리와 산림정비에 대한 선진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청의 산림문화자원 활용 및 산지개발 그리고 산림복지정책 발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 결과는 향후 산림복지지원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기반구축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

2. 출장기간 및 지역

- 2012. 9. 23(일) ~2012. 9. 28(금), 5박6일

3. 출장자

- 지역연구본부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양진홍 연구위원

4.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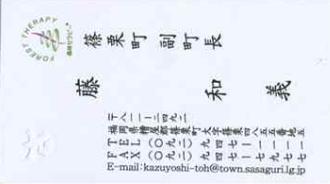
- 규슈 산림관리국, 후쿠오카현, 미야자키현 등의 산림관리 부처를 방문하여 산림정책 및 산림테라피 제도 관련 면담과 자료 조사
- 규슈지역의 산림테라피 기지를 방문하여 산림테라피 기지 인증기준, 방

5. 방문일정

일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9.23 (일)	인천공항 (09:30)	후쿠오카 (10:50)	항공이동	이동	
9.24 (월)	구마모토	구마모토	규슈 산림관리국	규슈산림국의 산림정책 현 황 및 레크레이션 산림현 황 청취 및 질의응답	국유림관리과 三吉 康治 山本 博
			레크레이션 산림	레크레이션 산림 현장조사	구마모토산림 관리서 市原 増雄 기쿠치계곡 협의회 小川 博哉
9.25 (화)	구마모토	후쿠오카	후쿠오카 현청	후쿠오카현 시민참가형 산 림계획 추진현황조사 및 질의응답	임업진흥과 月足 敏光 宮原 俊彦
	후쿠오카	사사쿠리쵸	사사쿠리쵸	후쿠오카현 사사쿠리쵸 산 림테라피기지 현장조사	부초장 藤 和義 산업관광과 吉村 久美子 三明祐治
9.26 (수)	후쿠오카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기리시마시 산림테라피기 지 현장조사	기리시마시 상공관광부 八幡洋一 田口壽隆
	가고시마	미야자키		이동	
9.27 (목)	미야자키	미야자키	미야자키 현청	미야자키현 환경산림과 및 관광추진과 방문 산림정비 추진현황 조사 및 질의응 답	관광추진과 兒玉 さわこ 西村 和弘 川野 美奈子 환경산림과 下沖 誠
			미야자키현 아야쵸	미야자키현 아야쵸 산림테 라피 기지 현장조사	
9.28 (금)	미야자키 (12:50)	인천 (14:30)	항공이동	귀국	

6. 접촉인물

일시	시간	소속	이름	명함
9/24	10:00	규슈산림관리국 계획부 국유임야관리계	三吉 康治	
			山本 博	
9/24	13:00	레크레이션의 숲 (기쿠치계곡 담당자)	小川博哉 (협의회 사무국)	
			市原増雄 (구마모토 산림관리서)	
9/25	10:00	후쿠오카현 농림수산부	月足 敏光	

일시	시간	소속	이름	명함
			宮原 俊彦	
9/25	13:00	사사구리초 산업관광과	吉村 久美子	
			藤 和義	
			三明祐治	
9/26	16:00	기리시마시 상공관광부	八幡洋一	
			田口壽隆	

일시	시간	소속	이름	명함
9/27	10:00	미야자키현 상공관광 노동부	兒玉 さわこ	
			西村和弘	
		미야자키현 환경산림부	川野 美奈子	
			下沖 誠	

II. 주요 활동내용

1. 일본의 국유림 정책 및 산림테라피 제도

1) 일본의 국유림 정책

- 일본은 국토 면적의 약 70%를 산림이 차지하고, 국유림은 약 760만ha로 국토 면적의 약 20%, 산림면적의 약 30%를 차지
- 일본의 국유림은 지역별로 구분하고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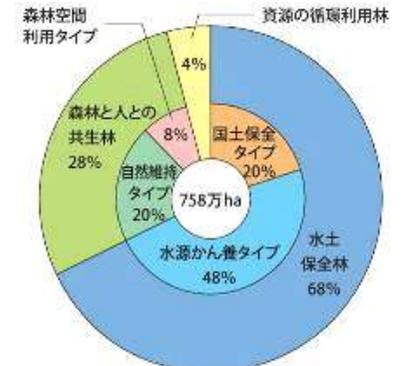
<그림 1> 일본 국유림의 지역별 담당 기관



- 일본 국유림은 중점적으로 발휘시켜야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수토보전림, 숲과 사람의 공생림, 자원의 순환 이용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 경영하고 있음

- 숲과 사람의 공생림 : 원생적인 산림 생태계 등 귀중한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과 자연과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이용을 중시하는 산림·산림생태계보호지역 및 산림생물유전자원 저장림 등의 보호림과 세계유산인 白神山地、屋久島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휴양림, 풍치탐승림 등 레크레이션 산림도 포함됨
- 수토보전림 : 토사유출·붕괴의 방지, 수원함양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토사유출방지방호안림, 산사태방지방호안림, 수원함양보안림으로 구분
- 자원의 순환 이용림 : 국민생활에 필요하고 환경에 부하가 적은 소재인 목재 등 임산물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중시하는 산림

<그림 2> 국유림의 기능 유형별 산림면적(2008년 기준)



資料 : 農林水産省「平成 20 年度国有林野の管理経営に関する基本計画の実施状況」
 注 : 官行造林地を除く
 출처 : <http://www.rinya.maff.go.jp>

(1) 숲과 사람의 공생림

- 원생적인 산림 생태계 등 귀중한 자연 환경의 보전, 국민과 자연과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이용을 중시한 산림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산림 생태계 보호 지역 및 산림 생물 유전자원 저장림 등의 보호림과 세계유산인 시라카미산지·야쿠시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 휴양림, 풍치 탐승림 등의 휴양림도 포함
- 숲과 사람의 공생림은 자연보존 유형과 숲공간이용 유형으로 구분
- 자연보존유형은 원생적인 산림 생태계의 유지 등 자연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산림, 학술적으로 귀중한 동식물의 서식에 적합한 산림을 목표로 함. 이곳에서는 학술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별채를 하지 않음

- 숲공간이용유형은 호수, 계곡 등과 일체가 되어 뛰어난 자연미를 구성하는 숲·거리·사적·명승 등 운택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풍치를 구성하는 산림 등으로서 필요에 따라 보건·문화·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산림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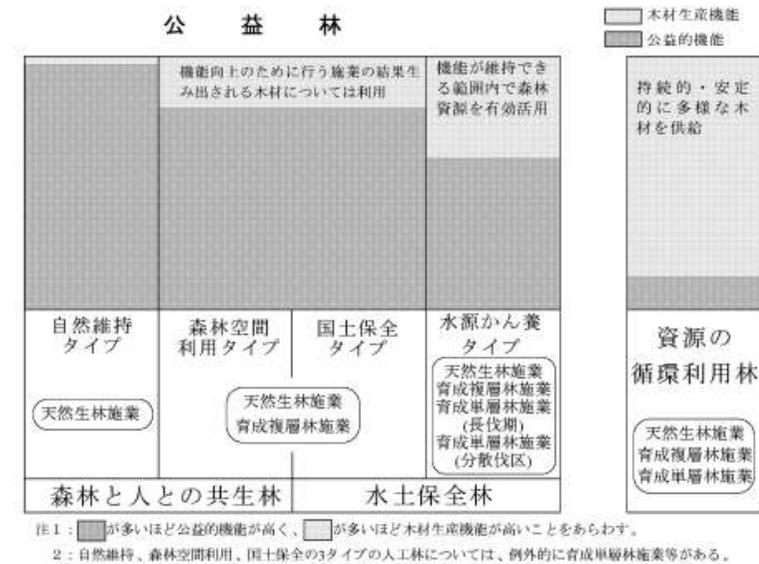
(2) 수토보전림

- 토사 유출·붕괴의 방지, 수원 함양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한 산림의 정비를 실시
- 토사 유출 방지 보안림, 산사태 방지 보안림과 수원 함양 보안림이 포함
- 수토보전림은 국토보전 유형과 수원함양 유형으로 구분
 - 국토보전 유형은 산지재해방지기능의 발휘를 목표로 수목의 뿌리가 토양에 둘러싸여 낙엽층을 보유하고 하층식생의 발달이 양호한 산림을 목표로 함
 - 수원함양 유형은 수원함양기능의 발휘를 제일의 목표로 토양 중의 생물 활동구나 식물의 뿌리 발달 흔적 등에 의한 공극이 많은 토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되어 하층식생 발달이 양호한 산림

(3) 자원의 순환 이용림

- 국민 생활에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소재인 목재 등 임산물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중시한 숲의 정비를 실시
- 지역별로 정한 목적 수종의 생산, 생산목표에 따라 형질 좋은 목재를 공익적 기능의 발휘에 유의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제일로 하는 산림을 목표로 함

<그림 3> 기능 유형과 공익적 기능의 상관도



2) 일본의 산림테라피 제도

(1) 개요

-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 다른 식물의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공기 중이나 땅속에 발산하는 방향성 물질로, 숲속의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스며들면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일본에서는 감각적 효과에 머물렀던 산림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산림테라피로 발전시킴
 - 단순하게 숲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새와 물 소리를 듣고, 나무를 만지고 껍질아보고, 숲의 정경과 시냇물을 바라보고, 나무향을 맡아보고, 나

무열매나 약수를 맛보는 오감 체험을 통해 산림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 산림테라피 효과를 전문가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받고 관련 시설 등 각종 조건을 갖춘 곳을 산림테라피 기지로 지정하며, 규슈·오키나와 지역에는 2012년 3월 기준 총 9개의 인증기지가 있음

<표 5> 규슈·오키나와 지역의 산림테라피 기지 현황(2012년 3월 기준)

구분	지역	인정시기	로드수
후쿠오카현	うきは市	2008. 4	3
	八女市	2008. 4	3
	篠栗町	2009. 3	4
미야자키현	綾町	2007. 3	3
	日南市	2008. 4	2
	日之影町	2006. 4	5
가고시마현	霧島市	2007. 3	3
구마모토현	水上村	2010. 4	3
오키나와현	國頭村	2007. 3	4

- 각 산림테라피 기지에는 ‘산림테라피 실행위원회’가 인증한 테라피 로드 가 마련되어 있음
- 테라피로드는 워킹 로드라고도 부르는데,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증된 워킹 로드로서 20분동안 보행할 수 있는 길이를 1유닛으로 삼아 지형이나 풍경 등을 조합하여 지루함을 없애고 테라피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복합적으로 설계된 산책로임

(2) 산림테라피 기지의 인정기준

- 산림테라피 기지의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NPO법인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前 사단법인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인정하고 있음
- 자연사회조건, 체제시설면 등을 평가

□ 자연사회 조건 등의 평가

오감에 작용하는 양호한 자연환경	감각적 평가가 양호하다
	자연의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유해 오염 물질이 없는지
	우수한 자연 환경의 유지·보호제도에 배려가 있는지
환경, 시설 등의 정비상황	테라피로드 등의 설정상황·관리상태가 우수한지
	시설 등 주변의 산림이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휴식·체험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을 것.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한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관리체제, 의료기관 등이 정비되어 있는지
해당 지역에 대한 액세스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유객권(誘客圏)을 상정하거나 입지 조건을 감안한 지역의 위치인지
	대중교통이 정비되어 있는지
	자가용의 방문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는지

□ 체제시설면 등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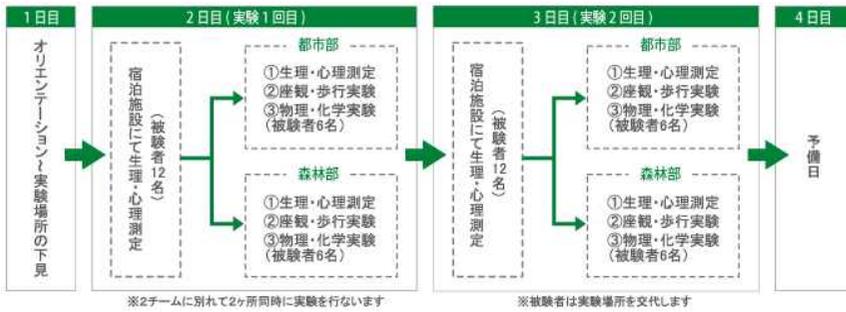
관리실태	전체 정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사무국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지
	행정조직의 추진체제가 확립되어 있는지
	숲 시설 등의 관리실태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지역주민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있는지
산림 테라피 메뉴	산림테라피에 관한 메뉴제공 방침이 명시되어 있는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메뉴가 제시되어 있는지
	숙박시설 등에 관한 메뉴가 제시되어 있는지
	보건·의료적 측면에서의 메뉴가 제시되어 있는지
지역주민의 수용태세	서비스의 제공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원스톱 창구가 정비되어 있는지
	산림테라피 가이드의 배치가 있는지
미래구상, 지속성·발전성	단기적(1~3년), 장기적(5년이상)으로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연속성·발전성 있는 추진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광고 선전 등 정보 발신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발전성 있는 추진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담당자 육성 등에 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세일즈포인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매력있는 산림테라피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3) 산림테라피 인정을 위한 실험의 개요

□ 실험일정

- 실험은 생리·심리·물리·화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기후가 따뜻한 7월에서 9월경 사이에 평일 3일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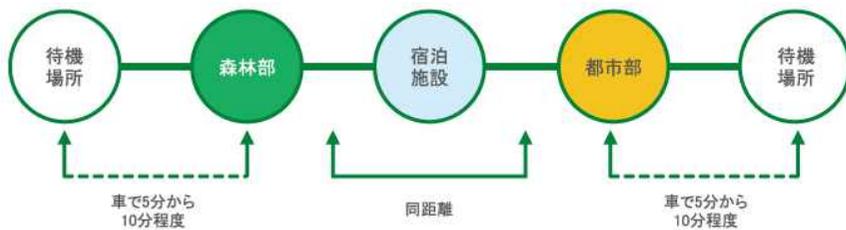
<그림 4> 인정 실험 일정



출처 : <http://www.fo-society.jp/certification/>

- 실험장소는 산림부와 도시부 2개소를 설정하는데, 피실험자가 숙박하는 숙박시설(비즈니스호텔 등)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실험장소(산림부와 도시부)에서 같은 거리(동일 이동수단으로 동일 시간 소요)가 되도록 설정

<그림 5> 인정 실험의 장소



출처 : <http://www.fo-society.jp/certification/>

□ 실험내용

- 산림부와 도시부 공통으로 ①생리측정항목, ②심리측정항목(주관 평가, 4 종류의 설문), ③물리·화학실험·측정항목 실험을 실시
- 생리측정항목 : 심박동변동성(HRV), 코르티솔 농도, 타액 아밀라아제, 혈압·맥박 측정
- 심리측정항목 : 기분 프로필 검사(POMS), SD법(숲의 느낌을 측정), 스트레스트도(30항목), 휴식도(30항목)
- 물리·화학실험·측정 항목 : 온열 환경 측정 PMV(환경의 쾌적성) 및 PPD(불편도), 빛 환경 측정(절대조도, 상대조도), 이온환경 측정(음이온, 양이온), 기압측정, 피톤치드 측정

<표 6> 산림테라피 인정 실험

보행 실험	타액 코르티솔 측정	온열 환경 측정 (PMV 측정기)	이온환경 측정 (이온카운터)
타액 코르티솔 측정	온열 환경(PMV) 측정	빛 환경 측정 (디지털 조도계)	기압(휴대용 기상계)
타액 아밀라제 측정	이온 측정	빛 환경 측정(전공사진)	음이온 측정
혈압, 맥박 측정	피톤치드 측정	피톤치드 채취	기분 프로필 검사 (POMS)

출처 : <http://www.fo-society.jp>

(4) 산림테라피의 효능

- 나무의 녹색, 맑은 공기, 작은 새의 지저귐, 숲의 향기를 즐기는 산림욕은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을 달래주는
- 숲속에서는 공기 중에 마이너스이온이 많고 특히 폭포나 개울 근처의 물이 격렬하게 솟아 오르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게 함
-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마음의 건강 등의 치유,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효과도 밝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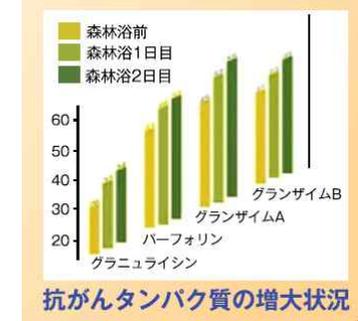
□ 의학적으로 밝혀진 산림욕의 효과

- 면역기능의 향상
 - 산림욕은 인간의 나チュラキラー(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신을 지키는 힘(면역기능)을 향상시킴
 - 나チュラキラー(NK) 세포란 병원체 등을 인식하고 배제하는 구조에 있어 주요요인으로 작동하는 림프구의 일종으로 특히 腫瘍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의 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암에 대한 저항력의 향상
 - 주요한 항암단백질이 증가하고 간에 대한 정항성이 높아짐(산림테라피 종합사이트)

<그림 6> NK세포 활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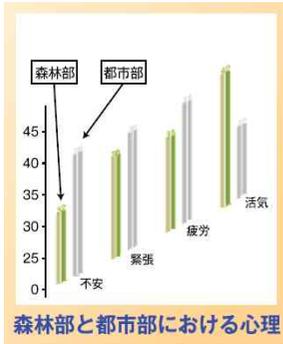


<그림 7> 항암단백질의 증대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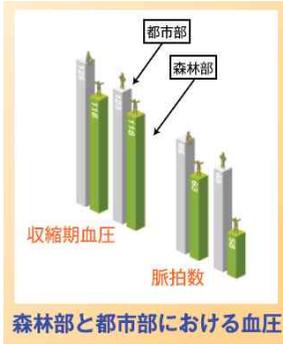


- 심리적인 릴렉스도(휴식도)의 향상
 - 심리측정의 결과 산림욕을 한 후에는 도시와 비교하여 불안, 긴장, 피로의 기분이 완화되는 한편 활기가 높아짐
 - 심리측정(POMS)는 앙케이트 용지를 사용하여 사람의 기분(긴장, 불안, 활기 등)을 측정(산림테라피 종합사이트)
- 혈압과 맥박수의 감소
 - 수축기 혈압과 맥박수가 도시에 비해 낮아지며, 산림이 도시보다 릴렉스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맥박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승함(산림테라피 종합사이트)
- 스트레스 감소 등
 - 산림 속에서는 스트레스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고 뇌의 활동이 진정화되고 릴렉스 상태가 됨(자료 : 독립행정법인 산림종합연구소, ブナ林에서의 산림욕은 도시와 비교하여 스트레스호르몬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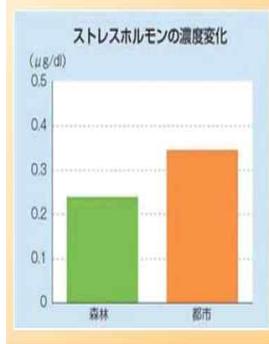
<그림 8> 심리비교



<그림 9> 혈압비교



<그림 10> 스트레스 변화



□ 나무의 매력

- 목재는 우리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건축재, 종이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목재를 많이 사용한 교사(학교건물)에서는 콘크리트 교사에 비해 아이들의 의욕과 집중력 등이 향상되고 인플루엔자에 의한 학급폐쇄율도 낮아짐
- 목재는 옛날부터 건축자재와 땀감으로서 이용되었고 현재는 우리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나, 건축양식의 변화 등에 의해 그 장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음

□ 목재의 특징

-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좋은 재료
- 환경에의 공헌 : 반영구적으로 재생산가능한 재료,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를 저장, 생산시의 탄소방출량이 적음
- 건강·교육에의 효과 : 집중력 향상, 인플루엔자의 만연을 억제, 의욕저하 억제, 컨디션 불량 경감, 정서불안 억제, 피로의 축적을 경감
- 목재의 특성 : 가볍고 강한 재료인데, 삼나무의 비중당 인장강도는 강철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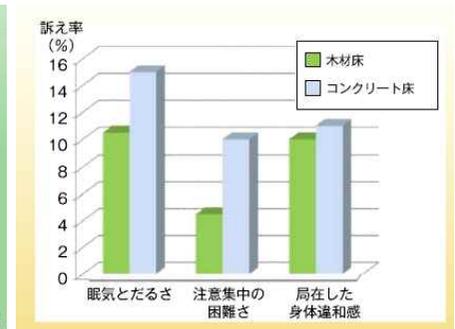
3배 이상, 거목은 화재에 강하며, 10분 가열한 경우 강도는 목재는 8할이 저하되고 철에서는 2할까지 저하됨

- 궁극의 재활용 재료임
- 목재는 반영구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폐목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여 순환이용이 가능
- 목조주택은 방대한 탄소 저장이 가능
- 우리나라의 목조주택 전체에서 1.3억 톤의 탄소를 고정한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 목조주택은 탄소를 저장하는 제2의 산림이라 할 수 있음
- 에코제품임
- 목재는 알루미늄과 강철 등에 비해 생산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고 지구환경에 좋은 재료임
- 집중력이 향상됨
- 목조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보다 발 아래의 냉기에 의한 졸음과 나른함, 주의집중의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었음(출처 : 早わかり木の 학교(문부과학성), 天野教子: 목조교사의 교육환경, 住木센터, p41, 2004)

<그림 11> 탄소방출량 비교



<그림 12> 목조교사와 콘크리트교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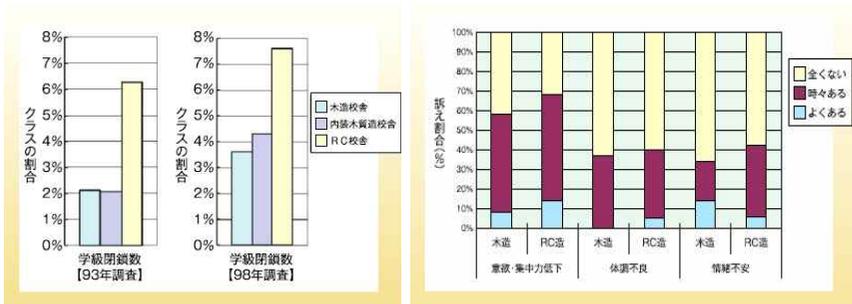
○ 인플루엔자의 만연을 억제

- 목조교사 및 인테리어를 목질화한 교사는 철근콘크리트조 교사에 비해 동절기의 인플루엔자에 의한 학급폐쇄율이 낮고, 인플루엔자의 만연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음 (출처 : 愛知教育大學橋田紘洋各譽教授 「木のまち・木のいえリレーフォーラムイン松本, 平成 22年 1월 30일・まつもと문화예술」)

○ 정서를 안정시키고 의욕저하를 억제

- 목조교사는 철근콘크리트조 교사에 비해 의욕과 집중력의 저하를 느끼는 아이들,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의 비율이 낮아짐(출처 : 愛知教育大學橋田紘洋各譽教授 「木のまち・木のいえリレーフォーラムイン松本, 平成 22年 1월 30일・まつもと문화예술」)

<그림 13> 인플루엔자 학급폐쇄율 <그림 14> 의욕 집중력 저하 등의 호소 비율



2. 규슈 산림관리국

1) 규슈 산림국의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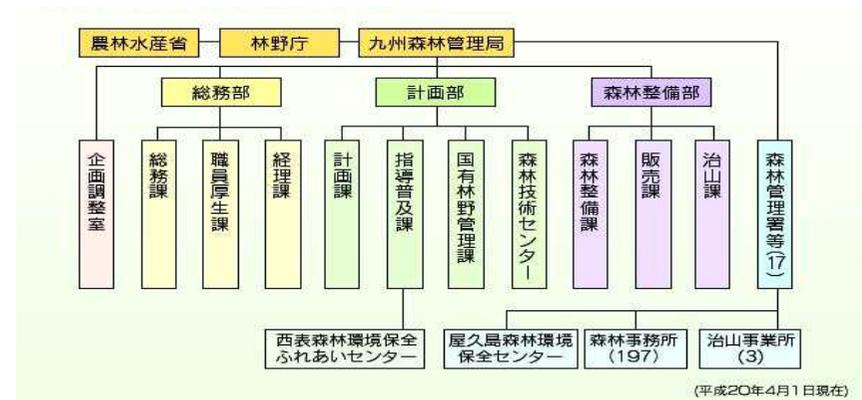
(1) 규슈 산림국의 개요

○ 규슈 산림관리국은 일본 규슈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슈·오키나와 8현에 소재하는 산림(약 280만ha)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53만ha를 관리·운영하며, 규슈의 산림·임업의 핵심 존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15> 규슈지역 국유림의 지역별 분포와 산림 비율



<그림 16> 규슈산림관리국의 조직



<그림 17> 순환형 자원으로서의 목재



<그림 18> 규슈산림관리국 관내도



(2) 규슈 국유림의 특징

- 북쪽은 나가사키 현 대마도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오키나와 이리 오모테 섬까지 남북으로 약 1,200km에 달하며,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아열대림과 온대림, 냉온대림과 변화 무쌍한 숲을 보유

- 이리 오모테의 仲間川 유역에는 일본 제일의 광대한 숲이 펼쳐져 있으며, 관내 전역에 조엽수림이 분포하고 야쿠시마에는 수령 수천년의 야쿠삼나무가 있음
- 세계 자연 유산에 등록된 야쿠시마를 비롯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과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생육하는 숲, 미래에 남겨야 할 귀중한 산림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
- 귀중한 숲은 산림 생태계 보호 지역 등의 보호림으로 설정하여 풍부한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이리 오모테·야마 네코 등 희귀 야생 동물의 보호를 도모하므로 서식지의 보전·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운젠 등 화산 지대와 奥地脊梁山 地 수원지역의 산림 등 국토의 보전과 수원을 지켜야 숲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수원 함양 보안림과 토사 유출 방지 보안림 등의 보안림 지정 및 치산 공사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
- 경관의 뛰어난 산림과 산림욕,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림 등 사람과의 만남의 장이 될 산림을 많이 보유
- 후쿠오카 현의 皿倉山과 쿠마모토 현 키쿠치 계곡, 야쿠시마의 야쿠스기란도를 비롯해 국민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레크레이션의 숲'을 설정
- 규슈 지방은 온난 다우하여 임목의 생육에 유리하고, 삼나무·노송 나무 등의 인공 조림·육림 기술이 발달하고 유명한 임업 지역이 형성
- 목재는 조림, 보육, 별채의 주기를 반복하여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도 기여하는 친환경 자원이며 순환형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음

2) 규슈 산림관리국의 정책

- 산림은 국토의 보전, 산림과의 만남의 장 제공, 수원의 함양, 지구온난화 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목재·특용임산물의 생산, 기타 기후 완화, 대기

정화, 소음방지 등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대상으로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1) 국유림의 관리경영

-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취지로 한 관리 경영을 기본으로, 민유림·국유림의 연계를 도모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측면에서 산림 정비와 목재의 안정 공급 등을 위해 관리 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취지로 하는 관리 경영
 -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형성과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자연 재생,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국민과 숲과의 만남의 장 제공 및 산림 경관의 보전 등을 중시한 관리 경영 계획으로 추진
- 숲의 유역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경영
 - 규슈 지역 30개 유역을 단위로 민유림과 국유림을 함께 정비
 - 임업·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하류 주민과의 연계 강화에 노력해 각 유역의 특성에 따른 관리 경영을 추진
- 국민의 숲으로 관리 경영
 - 국민 공통의 자산인 국유림야를 "국민의 숲"으로 지정하고, 국민에 열린 관리 경영 실시
 - 구체적으로는 국민과의 정보 송수신을 추진하고 체험 임업, 숲 교실 등의 산림 환경 교육의 추진과 자원 봉사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 참여의 산림 정비·보전 등을 추진
-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추진
 - 산림흡수원 대책으로서 이산화탄소 흡수·고정에 공헌하는 건강한 산림의 정비·보전과 목재 이용의 촉진 등에 노력

(2) 국민참여의 산림만들기 추진

- 최근 녹지와 숲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규슈 산림관리국에서는 산림 만들기에 중사하는 기업, NPO, 자원 봉사 단체 등이 국유림을 활동의 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나 강사 파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아야의 조엽수림 프로젝트
 - 규슈 산림관리국 · 미야자키현 · 아야초 · (재)일본 자연 보호 협회 · てるは의 숲 모임 5자가 협정을 교환, 연계, 협력
 - 국유림 9,000ha를 중심으로 인접한 현유림, 초유림(마을숲)을 더한 약 1만 ha를 대상으로 조엽수림의 보호, 복원을 진행하고 있음
- 법인의 산림
 - 기업이나 단체 등이 사회 공헌 활동, 환경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산림정비와 보전 활동의 장을 제공
- 만남의 숲
 - "산림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다", "푸름을 만나고 싶다"라는 자원 봉사 단체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

(3) 보안림 및 보호림의 지정

-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17종으로 나뉘며 지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입목의 벌채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어 있음
 - 관내에는 13종류(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산사태방지, 비사(飛砂)방지, 방풍, 수해방지, 호해(湖害)방지, 관개방지, 낙석방지, 魚つき, 항해목표, 보건, 풍치)의 보안림이 있음
- 보호림 · 녹색 회랑
 - 규슈의 국유림에서 특히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산림

생태계의 보호, 귀중한 유전자원의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림과 녹색 회랑 설정하고 귀중한 자연을 보호 · 보전하고 있음

3) 레크레이션의 숲

- 산림욕을 위해 규슈의 국유림에는 45개소의 레크레이션의 숲이 설치되어 있음
 - 자연휴양림(8개소) : 특히 경관이 아름답고, 보건휴양의 장으로 적합한 산림으로 자연탐승, 등산, 하이킹, 캠프 등을 즐길 수 있음
 - 자연관찰교육림(2개소) : 자연의 변화가 풍부하고, 자연관찰이나 과학교육에 적합한 산림으로, 자연을 즐기면서 식물, 조류 등의 관찰이나 산림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음
 - 산림스포츠림(1개소) : 숲과 만나는 아웃도어 스포츠에 적정한 산림으로, 캠프, 야외체육, 사이클링 등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음
 - 야외스포츠지역(2개소) : 장엄한 자연 속에서 상쾌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스키장 등의 시설이 일체가 된 지역
 - 풍경림(21개소) : 명소, 고적 등이 일체가 되어 경승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의 장엄한 전망과 지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음
 - 풍치탐승림(11개소) : 호소, 계곡 등이 일체가 되어 뛰어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목, 자연미를 즐길 수 있음

<표 7> 레크레이션의 숲(2010년 기준)

종류별	개소수	명칭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8	北九州、黒髪山、くまもと(金峰山地区、菊池水源地区)、由布・鶴見岳、宮崎、おおすみ(高隈地区、猿ヶ城地区)、屋久島(白谷地区、荒川地区)、西表(浦内川地区、仲間川地区、ヒナイ川地区)	
자연관찰교육림 自然觀察教育林	2	霧島、枇榔島	
산림스포츠림 森林スポーツ林	1	西之浦	
야외스포츠지역 野外スポーツ地域	2	向坂山、一ツ葉	
풍경림 風景林	21	立花山、経ヶ岳・五家原岳、鳴子潭、くじゅう山、日向海岸、北霧島、大川の瀧他	
풍치담승림 風致探勝林	11	若杉山、田代原、九重、御池他	

<그림 19> 레크레이션의 숲 유형별 면적과 이용자수 추계

レクの森種類別名称別面積
平成24年4月1日現在
単位:ha

種 類	名 称	森 林 計 画	審 等	面 積 (ha)	利 用 者 数
自然休養林	北九州	遠賀川	福岡	1,291.58	300,000人
自然休養林	黒髪山	佐賀西部	佐賀	568.22	12,000人
自然休養林	くまもと(菊池水源)	白川・菊池川	熊本	1,192.05	280,000人
自然休養林	くまもと(金峰山)	白川・菊池川	熊本	1,445.51	340,000人
自然休養林	由布鶴見岳	大分北部	大分西部	734.75	220,000人
自然休養林	由布鶴見岳	大分中部	大分	135.67	30,000人
自然休養林	宮崎	大淀川	宮崎	1,429.89	100,000人
自然休養林	宮崎	広瀬川	宮崎南部	14.18	宮崎省でカウント
自然休養林	おおすみ(猿ヶ城)	大隈	大隈	216.82	8,000人
自然休養林	おおすみ(高隈)	大隈	大隈	111.02	2,000人
自然休養林	屋久島(白谷地区)	熊毛	屋久島	423.73	
自然休養林	屋久島(荒川地区)	熊毛	屋久島	270.33	187,063人
自然休養林	西表(浦内川地区)	宮古八重山	沖縄	1,013.16	
自然休養林	西表(仲間川地区)	宮古八重山	沖縄	639.99	382,000人
自然休養林	西表(ヒナイ川地区)	宮古八重山	沖縄	399.02	
自然観察教育林	霧島	大淀川	都城	95.16	28,076人
自然観察教育林	枇榔島	大隈	大隈	17.61	200人
森林スポーツ林	西之浦	球磨川	熊本南部	48.68	5,156人
野外スポーツ地域	向坂山	緑川	熊本	0.49	宮崎北郡でカウント
野外スポーツ地域	向坂山	五ヶ瀬川	宮崎北部	114.74	37,386人
野外スポーツ地域	一ツ葉	大淀川	宮崎	212.60	300,000人
風景林	三郡山	遠賀川	福岡	50.95	
風景林	笠置山	遠賀川	福岡	9.58	
風景林	小谷	遠賀川	福岡	14.66	216,000人
風景林	安国寺	遠賀川	福岡	19.66	
風景林	立花山	福岡	福岡	54.51	
風景林	経ヶ岳・五家原岳	長崎南部	長崎	82.17	3,000人
風景林	有明山	対馬	長崎	59.77	1,000人
風景林	木原山	緑川・白川・菊池川	熊本	57.85	2,000人
風景林	鳴子潭	大分西部	大分西部	190.71	720,000人
風景林	くじゅう山	大分中部	大分	1,356.70	300,000人
風景林	祖谷山	大分中部	大分	28.79	10,000人
風景林	行徳	五ヶ瀬川	宮崎北部	85.31	35,000人
風景林	水無平	五ヶ瀬川	宮崎北部	10.48	2,467人
風景林	乙島	耳川	宮崎北部	17.42	205人
風景林	日向海岸	耳川	宮崎北部	63.83	177,507人
風景林	北霧島	都城	都城	233.64	339,458人
風景林	猪八重の滝	広瀬川	宮崎南部	103.27	25,000人
風景林	栗野岳	嬉良	鹿児島	98.52	300人
風景林	大川の滝	熊毛	屋久島	12.96	
風景林	千尋の滝	熊毛	屋久島	29.22	
風景林	田代ヶ浜	熊毛	屋久島	43.99	
風致探勝林	若杉山	福岡	福岡	32.22	
風致探勝林	玄海	福岡	福岡	131.69	860,000人
風致探勝林	油山	福岡	福岡	13.18	
風致探勝林	虹ノ松原	佐賀西部	佐賀	211.16	1,514,000人
風致探勝林	田代原	長崎南部	長崎	61.73	3,800人
風致探勝林	九重	大分西部	大分西部	47.41	690,000人
風致探勝林	尾鈴	一ツ瀬川	西都児湯	121.64	40,000人
風致探勝林	御池	大淀川	都城	113.27	28,076人
風致探勝林	赤池溪谷	広瀬川	宮崎南部	21.69	10,000人
風致探勝林	吹上浜	南薩	鹿児島	1,059.23	
風致探勝林	丸尾	嬉良	鹿児島	62.13	1,200人
計	45			14,874.74	7,210,894人

<표 8> 규슈 산림관리국 담당자 브리핑과 질의응답



□ 레크레이션의 숲 사례 : 기쿠치 계곡

- 기쿠치 계곡은 구마모토 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쿠치 강 원류 근처 4km 걸쳐 이어진 계곡임
- 기쿠치계곡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기쿠치시에서 동쪽으로 약 17km, 아소 외륜산 북서부의 표고 500~800m의 사이에 펼쳐지는 1,193ha가 '이코이노 모리'임
 - 국유림에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서 수원함양 보안림 등으로도 지정됨
- 기쿠치 계곡은 울창한 천연생 광엽수로 덮여 있으며 그 사이를 누비며 흐르는 복류수(伏流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여울과 웅덩이, 폭포를 만들며 변화가 풍부한 계류와 아름다운 산림이 엮어내는 모습이 절경을 이룸
 - 가케마쿠 폭포를 비롯해 레이메이 폭포, 모미지가세, 류가부치(용의 연못), 텐구 폭포, 온쥬산만 폭포 등과 심연, 거암 등이 경관을 이룸
 - 50종 이상의 야생조를 관찰할 수 있는 야초노모리(야생조의 숲), 삼림 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규슈 자연 유람도가 만들어져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음
- 기쿠치 계곡 내에는 숙박시설 등은 없으며, 기쿠치계곡 보호관리협의회에서 관리

- 방가로 등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미비하고 안내판이나 간단한 벤치 정도의 시설만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칩을 이용하여 보행 편의를 위해 도로 중간부분에 폭신하게 조성

<표 9> 기쿠치 계곡의 시설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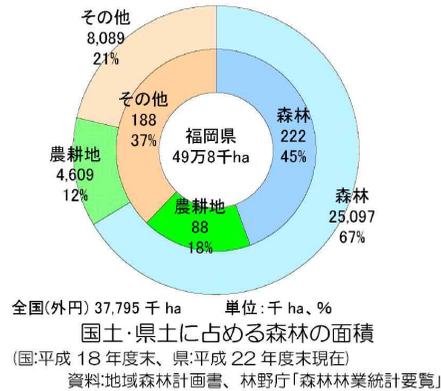
3. 후쿠오카현청

<그림 21> 임지개발허가제도의 체계도

1) 후쿠오카현 산림 개요

- 산림면적은 22만 2천ha, 현 토지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45%, 전국평균의 67%(2006년도 말)보다 20포인트 이상이 낮은 비율임
- 민유림의 인공림은 12만 9천 ha로 인공림률은 66%이며, 이는 전국평균 46%(2006년말)보다 20포인트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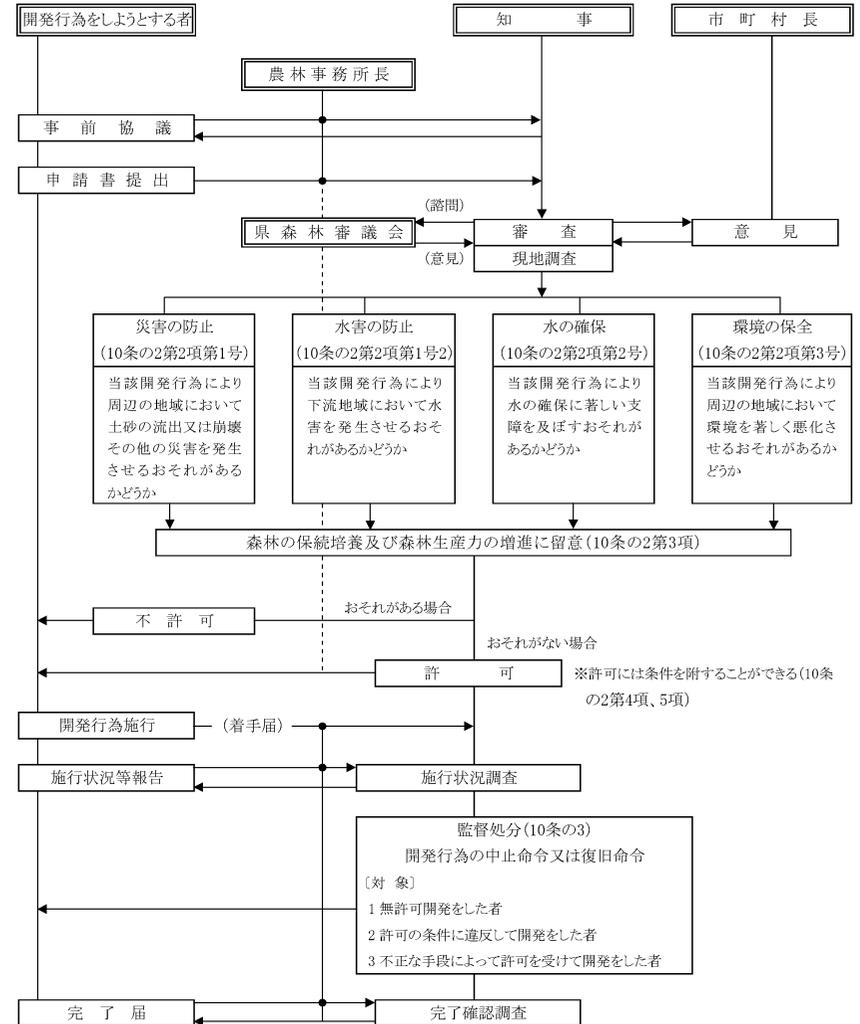
<그림 20> 후쿠오카현의 산림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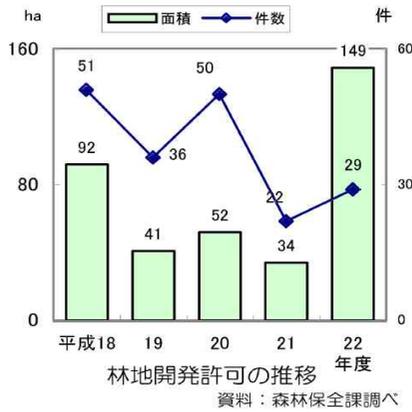
2) 임지개발허가제도

- 산림법의 규정을 기초로 한 산림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로 산림면적이 1ha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는 현지사의 허가 대상이 됨
- 2011년의 임지개발허가건수는 29건(신규허가건수 10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 증가하였고 면적은 149ha로 전년에 비해 115ha 증가하였으며, 그 중 토석의 채굴이 가장 많은 19건, 127ha임
- 임지개발허가제도에 있어 허가의 주요 목적은 토석의 채굴이 32%, 골프장 조성이 24%, 주택단지의 조성이 22%의 순임
- 임지개발허가시 현에서는 재해의 발생이나 환경에의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심사하고 또한 허가지를 순찰하며 개발이 완료될때까지 침사지의 관리 등 방재대책을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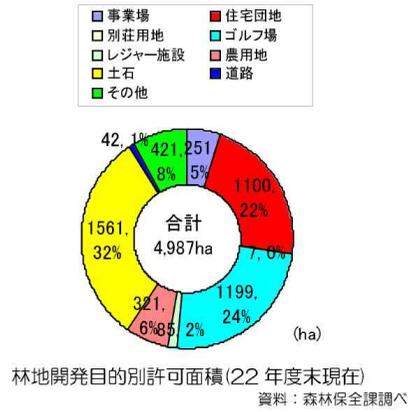
林地開發許可制度の体系図



<그림 22> 임지개발허가 추이



<그림 23> 임지개발목적별 허가면적



3) 산림환경세 제도

(1) 도입 경위

- 후쿠오카현의 산림을 재생하고 보호·양육하여 풍부한 현민 공유의 재산으로서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도입
- 후쿠오카현의 산림 면적은 약 22만 2천ha이며 그 중 약 3분의 2가 인공림임인데, 인공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임업 침체로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는 황폐한 산림이 증가
- 산림을 방치하면 공익적 기능이 저하되고, 홍수와 가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생활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침
- 후쿠오카현에서는 숲의 보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책의

<그림 24> 산림환경세 도입배경



필요성에 따라 2006년 4월 외부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산림 환경세 (가칭)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

- 현민에게 설문을 실시하는 등 근거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황폐 한 산림을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며, 그 재원으로는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적당하다"는 보고에 따라 산림 환경세의 도입이 결정
- 이에 따라 2006년 12월 후쿠오카현 의회에서 "후쿠오카현 산림 환경세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되었고, 2007년 10월 5일 "후쿠오카현 산림 환경세 조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규칙"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1)
- 2003년도에 고치현이 처음 산림 환경세를 도입한 이후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한 세금을 33개의 현에서 도입하고 있음(2012년 4월 1일 현재)

(2) 산림환경세의 세액

- 2006년 12월 '후쿠오카현 산림 환경세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부터는 산림 환경세는 황폐한 산림의 재생과 현민참가 산림만들기 사업에 사용
- 산림 환경세의 세수는 연간 약 13억엔으로 (평균 기준) 전망
- 개인에게 부과되는 산림환경세는 연간 500엔임

<표 10> 개인에게 부과되는 산림환경세

세액	연간 500엔
대상	개인 현민세 균등할을 납부하고 약 200 만명이 대상 (대상 기준 : 약 100 만 원 이상의 소득이있는 경우)
적용시기	2008년도 분의 개인 현민세부터 적용
납부방법	- 사업 소득자 등의 주민세 납부는 년 4회 (6,8,10,1 월)로 나누어 납부 - 급여 소득자는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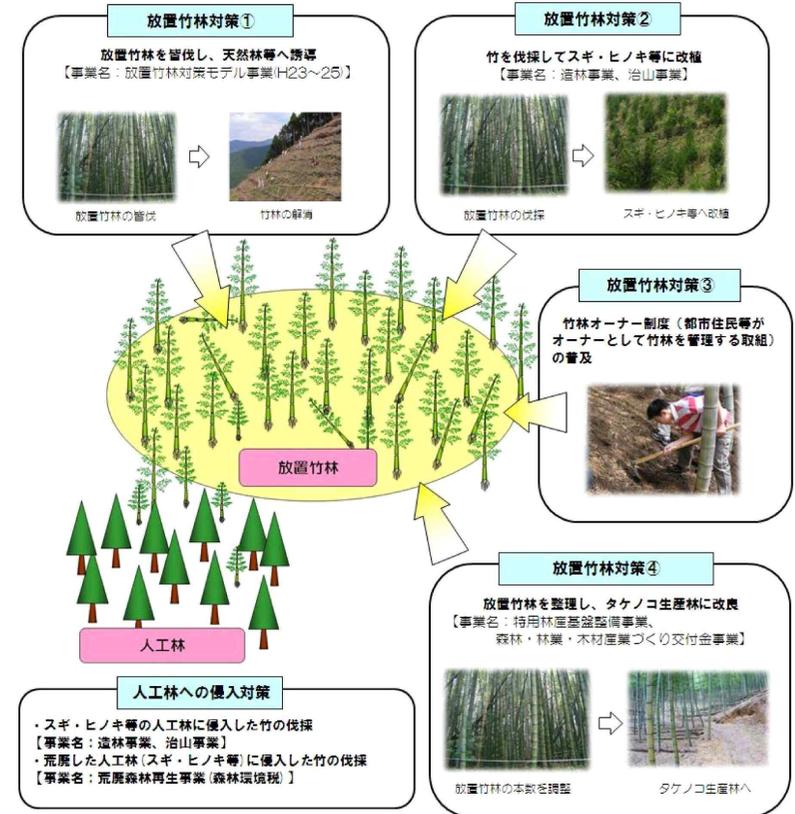
1) 후쿠오카현 산림환경세 조례는 부록 1 참조

- 법인에게 부과되는 산림환경세는 연간 1,000엔~4,000엔으로 자본 등의 금액에 따라 상이

<표 11> 법인에 부과되는 산림환경세

세액	자본 등의 금액에 따라 현민세 균등할액의 5% 상당액 (연간 1,000엔 ~ 40,000엔)
대상	법인 현민세 균등할을 납부하는 약 10만개의 회사가 대상
적용시기	200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년도에 관한 법인 현민세부터 적용
납부방법	법인 현민세 신고시에 납부

<그림 26> 죽림오너제도



4) 죽림오너제도

(1)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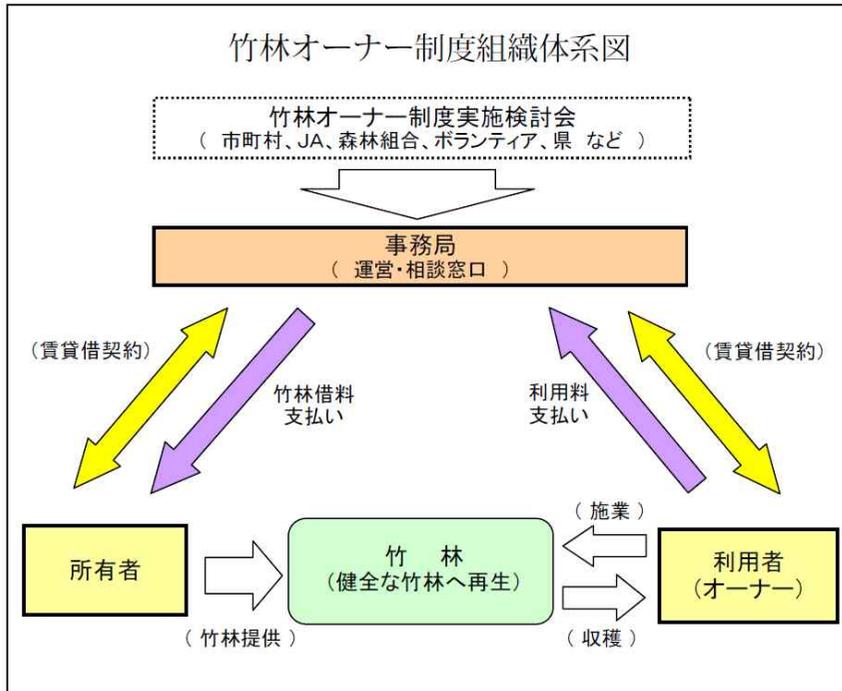
- 후쿠오카현에는 약 1만 2천 헥타르의 죽림이 있는데, 과거에는 죽림에서 죽순과 대나무가 생산되어 농림업의 귀중한 수입원이었음
- 그러나 최근 수입 죽순 증가와 대나무의 대안에 밀려 사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의 고령화와 겹쳐 관리 부족이 심화되어 방치된 죽림이 증가
- 또한 땅속 줄기로 번식하는 대나무는 주변의 농지와 조림지에 침입하여 단기간에 농작물이나 조림 나무를 말려 버리는 "침입 대나무"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죽림오너제도는 죽림의 소유자와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의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오너가 된 협약자가 죽림의 관리(수확까지)를 하는 제도로서 방치죽림 등 소유자의 관리가 어려운 죽림의 해소방책으로서 기대됨

(2) 죽림오너제도의 구조

- 죽림오너제도는 2004년 가고시마현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후쿠오카현 내에서도 3개의 시 2개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제도는 죽순의 발생에 안팎(裏表)이 있고 입지 조건에 좌우되는 작물이나 죽림의 관리 소유자와 오너 쌍방의 권리가 얽혀있는 등 개별 건 각각의 실정에 맞추어 진행됨
- 후쿠오카현에서 실시하는 죽림오너제도의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음

2) 죽림오너제도 서약서(예시)는 부록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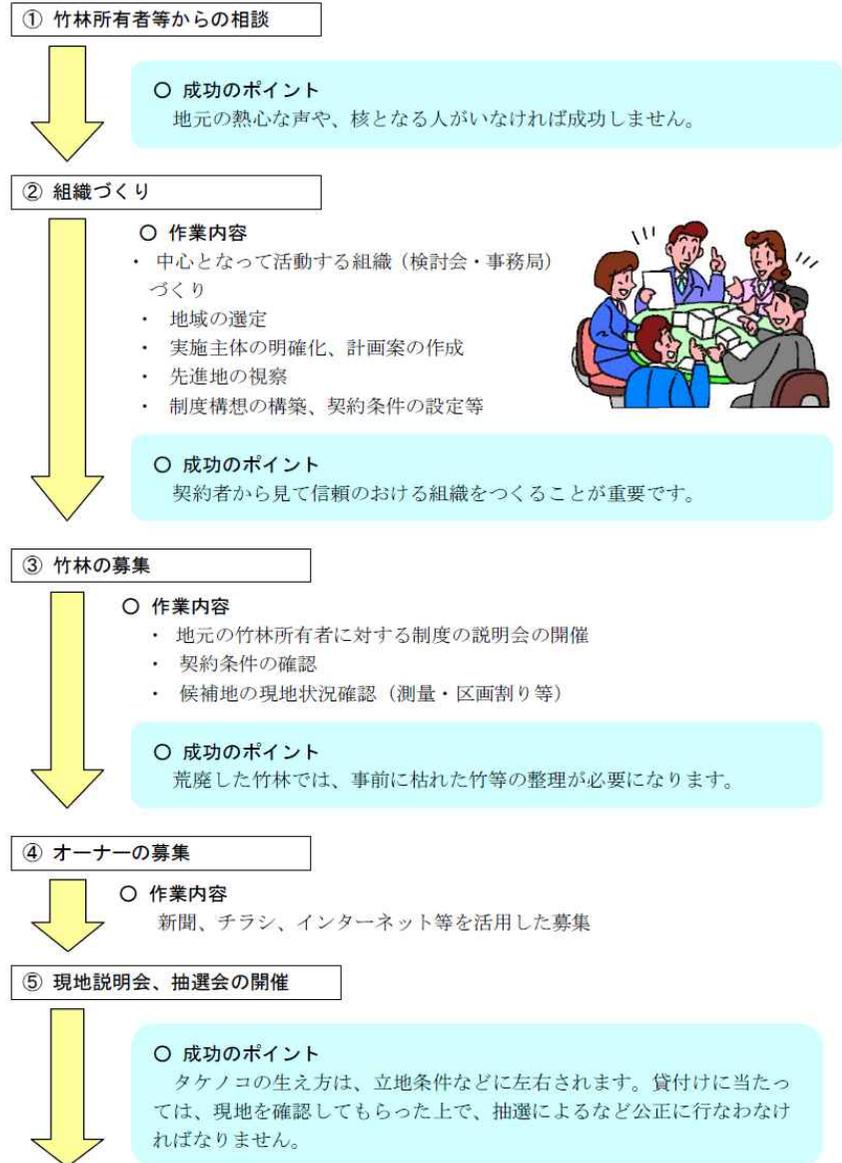
<그림 27> 죽림오너제도 조직체계도



(3) 제도도입의 메리트

- ① 죽림의 소유자 측면에서는 관리되지 않던 죽림이 정비되고 이와 함께 연간 이용료를 받음
- ② 도시민 등의 측면에서는 자연 체험과 휴식의 장소가 됨
- ③ 평소 산림과 임업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민이 산림의 기능과 임업에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 ④ 관리 및 수확 작업에서 여러번 주인이 방문하거나, 지역 이벤트에 소유자를 초대·참여하여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됨

(4) 제도의 흐름



⑥ 契約

○ 作業内容

竹林所有者とオーナー希望者、事務局で賃貸借契約の締結

○ 成功のポイント

- ・ オーナーへの貸付に当たっては、以後のトラブルを防止するため、契約書により貸付の区域や条件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が大切です。
- ・ 竹林所有者とオーナーとの間に事務局を置いた3者契約とすると、運営も円滑になり、後々のトラブル予防にもなります。
- ・ タケノコや竹材の盗難を防ぐため、契約地には、オーナー以外の立ち入りを禁止する看板等を設置しましょう。

⑦ 竹林管理講習会等の開催

○ 作業内容

オーナーを対象とした、収穫や安全な伐竹等の技術講習会の開催

○ 成功のポイント

オーナーは、竹林の管理作業が初めてであったり、不慣れであったりします。講習会の開催により、管理技術とともに竹林の手入れの意味を知ってもらえることが、オーナーの参加意欲や実施後の充足感を高めます。

⑧ オーナーによる竹林整備開始

○ 成功のポイント

- ・ 伐採される竹材の処分(利用)方法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粉碎機を貸し付ける仕組みを作る」、「伐採時期、集積場を定めておき、まとめて業者に販売する」など。またイノシシによる被害が予想される地域では、侵入防止柵としての活用も有効です。)
- ・ オーナーは、地域に乗用車で乗り付ける場合が多いため、侵入路の整備や、駐車場・トイレへの配慮が必要です。

⑨ オーナーと地域住民の交流イベントを実施

○ 成功のポイント

イベント(収穫祭や試食会等)の開催や、地域住民を伐竹等の指導者として活用すると、交流の輪が広がり、取り組みの継続につながります。

(5) 実施地域の 사례소개

- 이 제도는 2006년 타치바나 마을(立花町)과 쿠로키 마을(黒木町)에서 실시하였고, 2007년도 이후에는 무나카타시(宗像市)、기타규슈시(北九州市)、야메시(八女市)에까지 확산

<표 12> 사례소개 (2009년 3월 현재)

마을명	立花町	黒木町	宗像市	北九州市	八女市
시작연도	2006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실시지역	飛形山외 4개소	グリーンピア八女 주변	宗像市吉留・池田	八幡東區大藏	八女市忠見
총구획수	67	180	23	10	15
1구획면적	250㎡	200~600㎡	150~300㎡	270~460㎡	300㎡
면적(ha)	1.90	5.51	1.00	0.40	0.45
1구획의 연간 이용료	초년도 2만엔, 2~4년 1만엔, 5년째 불필요	4천엔~1만3천엔	5천엔~8천엔	1만엔	7천엔~1만2천엔
계약기간	5년	5년	3년	3년	5년
실시주체(사무국)	立花ふるさと竹資源まちづくり協議會(道の驛内)	黒木町竹の幸ほらん會(役場内)	宗像市森林組合	北九州市里山トラスト會議	協議會(八女市、J A, シルバーなど)
문의	0943-37-1055	0943-42-1117	0940-36-0041	093-662-3100	0943-23-3120
응모자격	없음	없음	宗像市 거주자	없음	없음
소유자에의 우대조치	회원카드 발행(숙박시설 이용우대, 상품 등의 할인)	회원카드 발행(숙박시설 이용우대, 상품 등의 할인)	없음	없음	미정

* 取り組みの早い順に記載しています

<표 13> 후쿠오카현 산림 담당자 미팅



5) 사사구리초 산림테라피 기지

- 산림테라피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의 릴렉스효과를 과학적으로 실증 받고 관련시설 등이 일정한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사사구리 산림테라피기지는 2009년 3월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산림소사이터티로부터 인정 받음
- 사사구리 산림테라피기지는 삼면이 산으로 에워싸인 풍요로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후쿠오카 도심지와 근접(차로 약 30분 소요)한 것이 특징
- 사사구리에는 13종류의 워킹코스가 있으며, 이 중 4개가 산림테라피로드로 인정 받음
 - 낙양 코스 : 왕복 1.75km 25분 해발고도 약 598m 고저차 약 63m, 평탄한 길로 평균경사도 7.4%
 - 아라타주유 코스 : 한바퀴 10.5km 180분 해발고도 약 530m 고저차 약 186m
 - 부부삼나무 코스 : 편도 6.36km 120분 해발고도 약 679m 고저차 약 607m
 - 자양화 코스 : 편도 7.34km 130분 해발고도 약 670m 고저차 약 597m
- 산림테라피는 산림욕으로 알려진 감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숲의 힘으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

○ 산림테라피의 효과

- 도심과 산림속에서 여러 실험을 해 본 결과, 산림에서는 사람의 침 속에 코르티솔이란 스트레스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높아지는 교감신경이 억제되며 뇌도 릴렉스된 상태가 되는 등 여러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됨
- 사사구리 마을은 산림테라피 기지로 인정 받기 위해 2008년 7월 낙양코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
- 가이드를 동반할 경우 1인당 1500엔의 비용이 소요되며, 가이드 및 테라피스트는 자원봉사자로 2인이 1조로 운영됨

<그림 28> 사사구리 산림테라피 기지



<표 14> 사사쿠리초 산림테라피



사사쿠리초 산림테라피 관계자 회의



사사쿠리초 산림테라피 답사전 준비운동



산림테라피 체험



산림테라피



테라피스트 명찰



산림테라피가이드 명찰

※ 참고 : 산림테라피스트

- 산림테라피 가이드
 - 산림에 관한 환경과학적인 지식과 숲의 치유 효과에 대한 생리학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이용자에게 산림테라피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등 산림욕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사람
 - 산림테라피 검정(2급)에 합격한 뒤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사람을 산림테라피 가이드로 인정
- 산림테라피스트
 - 산림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보조 및 조언을 행하는 사람으로, 특히 건강 및 심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함
 - 산림테라피 검정(1급)에 합격한 뒤 다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자료 : 히라노히데키 외, 2009, 「산림테라피」 p.22)

4.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1) 기리시마시 산림테라피 기지

- 기리시마는 1934년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천손 강림 신화의 땅으로 알려져 있음
- 기리시마는 가고시마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리시마화산과 사쿠라지마, 야쿠시마를 포함한 기리시마야쿠 국립공원의 기리시마지구의 현관으로 알려져 있음
- 2007년 3월 가고시마현에서 처음으로 산림테라피기지로 인정되었으며, 기리시마 고원 국민휴양지를 거점으로 3개의 코스가 정비되어 있고, 8개의 온천이 점재

- 柳ヶ平散策路 코스 : 표고 약 520m~530m 거리 약 2.6km
- 手洗散策路 코스 : 표고 약 600m~690m 거리 약 900m
- 丸尾自然探勝路 코스 : 표고 약 600m~700m 거리 약 1km

○ 산림테라피의 효능

- 기리시마시에서는 2006년 7월 산림총합연구소에 의해 생리·심리실험이 행해졌고, 12명의 피실험자의 협력 결과 산림부의 스트레스 완화효과와 릴렉스효과가 실증되었음

<그림 29> 산림테라피의 효능



- 맥박과 혈압의 측정, 타액 채취 등의 생리적 변화를 검증한 결과 맥박수는 도시부에 비해 산림부가 낮고, 스트레스 상태가 완화되었으며, 산림부의 경우는 refresh 되었다고 느낌

- 산림테라피 참가 신청과 가이드(자원봉사자)의 연결은 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로 가이드클럽이 형성되어 있어 가이드 동반 코스 탐방 시 팀당 5000엔의 비용을 부과

<그림 30> 기리시마 산림테라피 코스



<표 16> 기리시마시 산림테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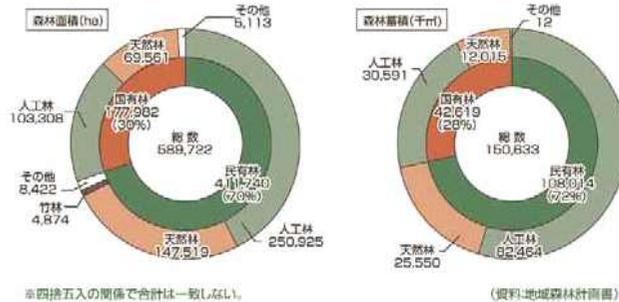
5. 미야자키현청

1) 미야자키현 산림의 개요

- 미야자키현의 산림면적은 현 토지의 76%에 해당하는 59만ha이며 이 중 민유림이 70%인 41만2천ha, 국유림은 30% 17만ha임
- 인공림은 쇼와 3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대조립되어 민유림 25만1천ha, 국유림 10만3천ha, 총 35만4천ha임

<그림 32> 미야자키현 산림자원의 현황

【森林資源の現状】(森林法第2条に規定する森林、平成22年3月31日現在)



2) 산림환경세 제도

(1) 개요

- 장기적인 목재 가격의 침체, 임업 취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하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하되어 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 현에서는 산림의 정비·보전을 소유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현민 공유 재산으로 파악하여 현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한 산림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역할과 분담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

한 '미야자키현 물과 산림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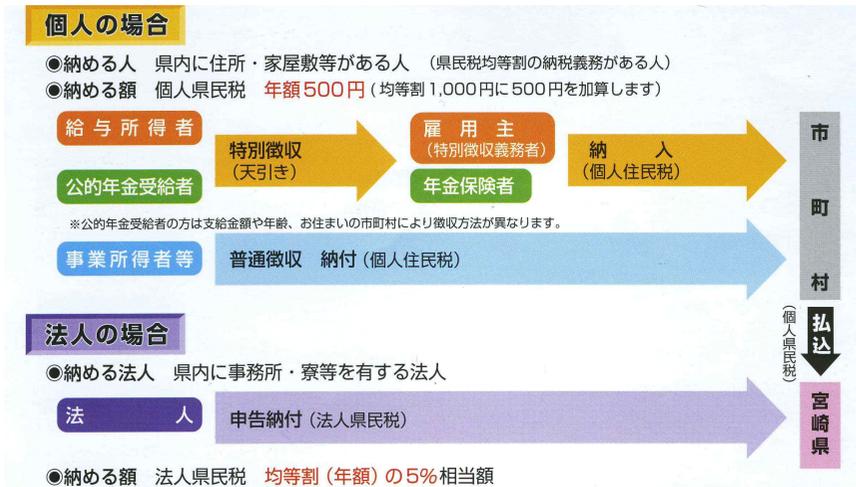
- 현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을 통해 현민 전체가 산림을 지키고 키워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2006년 4월에 '미야자키현 산림 환경세 조례'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산림환경세를 활용하여 '현민 참가의 숲 만들기'와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숲 만들기'의 관점에서 현민 모두가 산림을 지켜 기르는 의식 양성과 다양한 숲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음

(2) 산림환경세의 구조

- 미야자키현의 산림환경세는 제1기(2006년~2010년)와 제2기(2011년~2015년)로 구분하여 추진 중
 - 제1기는 현민의 이해와 참여에 의한 산림만들기와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만들기를 위주로 추진되었음
 - 제2기는 현민의 이해와 참여에 의한 산림만들기,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만들기 외에 자원의 순환이용에 의한 산림만들기를 추진중
-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부과
- 개인의 경우
 - 납세자 : 현내에 주소·주택 등이 있는 자(현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 납부금액 : 개인현민세 연액 500엔(균등할 1,000엔에 500엔을 가산)
- 법인의 경우
 - 납세 법인 : 현내에 사무소·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
 - 납부방법 : 신고납부(법인현민세)
 - 납부금액 : 법인현민세 균등할(연액)의 5% 상당액

3) 미야자키현 산림환경세 조례는 부록 3 참조

<그림 33> 산림환경세의 구조



<표 18> 법인의 산림환경세 세액

자본금 등의 금액	균등할액	산림환경세	균등할액계
50억엔 초과	800,000엔	40,000엔	840,000엔
10억엔 초과~50억엔	540,000엔	27,000엔	567,000엔
1억엔 초과~10억엔	130,000엔	6,500엔	136,500엔
1천만엔 초과~1억엔	50,000엔	2,500엔	52,500엔
1천만엔 이하	20,000엔	1,000엔	21,000엔

(3) 산림환경세를 활용한 사업실적 (2007년 기준)

- 현민의 이해와 참여에 의한 산림만들기 추진
 - 산림만들기 응원단 육성·지원사업 : 현민 또는 기업의 산림만들기 활동 지원
 - 산림환경교육 추진사업 : 강사과건 등 지역과 학교의 숲 환경 교육 지원 등
 - 물과 녹색의 산림 조성 추진 사업 : 산림만들기 추진기간(10월~11월) 등에 현민에게 참가를 호소하는 '산림만들기 현민 자원봉사 모임' 등 개최

-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만들기 추진
 - 물을 저장하고 재해에 강한 숲 조성 사업 : 장기간 방치된 수원지 등의 공익보전에 중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심기와 침엽수 및 활엽수가 섞인 숲을 유도하기 위한 간벌 등의 실시
 - 꽃가루가 적은 묘목 생산 등 촉진 사업 : 삼나무 꽃가루의 발생 억제를 위해 삼나무 꽃가루가 적은 묘목 생산 등
- 산림환경세 5년간(1기, 2006년~2010년)의 수입은 총 14억엔이며 현민의 이해와 참여에 의한 산림만들기(소프트사업)에 약 2억 6천만엔을 사용하였고, 공익적기능을 중시한 산림만들기(하드사업)에는 약 8억 9천만엔을 사용함

※ 참고 : 미야자키현이 산림테라피 기지에 보조한 실적

- '치유와 건강의 임업' 창출 촉진 사업 보조금
 - ① 내용
 - 소프트사업에 관한 보조 : 실행위원회의 개최 등, 실천자 육성을 위한 연수회의 개최, PR과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 등에 보조
 - 간단한 하드 정비 사업에 관한 보조 : 워킹로드에 설치하는 바이오화장실, 목재안내판, 목재난간, 건강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보조
 - ② 보조금액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히노카게초	1,500	1,500	1,000			4,000
아야초		1,200	1,200	1,500		3,900
기타고초			2,300	1,500	1,500	5,300

3) 미야자키현 산림종합이용시설4)

구분	취지 등	면적(ha)	시설	설치·관리 등
明治百年記念の森 (行藤山縣民の森)	1971년에 「明治百年記念の森」으로서 현민의 보건휴양·자연애호사상의 향상·야생조수의 보호·청소년의 정서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74ha	산장 2동, 산책로	미야자키현
宮崎縣ひなもり台 縣民ふれあいの森	1973.4.8 자연의 보호와 창출을 테마로 추진되어 제24회 전국식수축제를 기념하여 현민의 보건휴양 및 산림·임업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정비. 그 후 아웃도어라이프 지향의 증가 추세로 오토캠핑장을 확충 정비	약 310ha	산림전시관, 체육관, 집합훈련광장, 야외학습전시원, 자연관찰보도, 오토캠핑장 등	미야자키현 (지정관리자 : 미야자키현 산림임업협회)
宮崎縣諸縣縣有林 共に學ぶ森	ふれあいの縣民の森 정비구상의 일환으로 현민이 산림의 기능과 임업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임업체험연수의 장을 1997년에 諸縣현유림 내에 정비	약 139ha	다목적관리동, 주차장, 연수광장, 진입로	미야자키현 (지정관리자 : 미야자키현 산림임업협회)
宮崎縣川南遊學の 森	산림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현민참가의 산림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산림환경교육의 현장 모델과 산림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정비	약 23ha	전망시설, 정자, 바이오화장실, 숲볼체험시설, 조류관찰시설, 산책로	미야자키현 (지정관리자 : 미야자키현 녹화추진기구)
御池野島の森	1973년 霧島屋久국립공원 내 御池 주변에 전국 최초로 「野島の森」 개설. 야생 조류에게 쾌적한 환경을 부여하고, 보호증식을 위하여 야생조류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함. 현민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야생 조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야생조류보호의식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약 115ha (임지 102, 호수 13)	관찰오두막, 정자, 관찰로, 관리오두막, 급수급식시설, 유실수 식재, 안내판 등	환경성, 규슈산림관리국, 미야자키현

4) 미야자키현 산림테라피 기지 : 아야초를 중심으로

(1) 아야초 산림테라피 기지

- 196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상록 활엽수 지대 벌채 계획이 진행되었는데, 아야초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벌채를 막아내서 일본 최대 규모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는 고장이 되었음
- 아야초는 미야자키현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미야자키시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음
- 아야초의 서쪽에는 높이 1,108m인 오모리다케(大森岳)산이 솟아 있고 그 주변에 펼쳐진 상록 활엽수림은 1982년 규슈중앙산지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⁵⁾
- 2007년 3월 산림테라피기지로 인정되어 같은해 11월 오픈하였으며, 운영 주체는 아야초산림테라피 추진협의회(아야초청 농림진흥과 내)임
- 아야초의 워킹코스의 특징은 다른 곳과 달리 보행 거리가 약 1km, 길어 약 3km 미만으로 짧음
- 그러나 코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이지만 산의 푸름을 바라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새소리를 듣는 등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임
- 걷는 시간도 짧고 평지나 다름없는 길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 등 누구나 산림테라피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
- 워킹코스는 4개가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22명의 가이드가 있어서 산림테라피에 대한 상담이나 응급처치, 아야초의 역사, 산림 생태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줌(유료)

5) 일본을 대표하는 자연풍경지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지에 대해서는 국정공원, 지자체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는 도도부현립 자연공원으로 지정(히라노히데키 외, 「산림테라피」)

4)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4 참조

- 나카가와 자연공원 코스 : 아야초 산림테라피 기지의 메인 코스로 데루하 대현수교에서 차로 10분 정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상록활엽수림의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루트임. 총 길이는 3.5km이고 가이드와 함께 걷는 경우에는 1인당 2500엔(도시락, 음료수, 보험료 포함. 중학생 이상 1500엔)이며 1.5km 코스와 3.5km 코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음. 가이드 투어는 사전 신청 필요
- 야야신사 일주 코스 : 산이 아니라 아야초 거리를 걷는 루트로 아야성이나 국제크라프트성, 마사공원 등 아야초의 관광 명소를 걸으며 마을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음
- 데루하 대현수교 일주 코스 : 아야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데루하 대현수교에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한바퀴 도는 코스. 길이는 약2km로 그냥 걸어가면 40분 정도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숲을 즐기면서 간다면 3시간 코스가 됨. 가이드 요금은 1인당 500엔이며 다리 입장료 300엔은 별도임.
- 창조의 숲 코스 : 슈센노모리 남쪽의 1km를 걷는 코스. 야야신사 코스처럼 시가지 산책임

<표 23> 아야초 산림테라피



※ 참고 : 규슈·오키나와 산림테라피 기지 네트워크 회의

- 규슈 지역에서 산림테라피 인정을 받은 5현 9자치체에서는 ‘규슈·오키나와 산림테라피 기지 네트워크 회의’를 조직하고, 각 지자체가 익힌 노하우, 과제를 공유하고 자치체 상호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 중임

- 미야자키현에는 아야초 외에 두 군데의 산림테라피 기지가 더 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히노카게초(日之影町) 산림테라피 기지

- 미야자키현 북부에 위치한 히노카게초는 약 278km²나 되는 넓은 면적에, 그 중 92%는 숲이라는 자연환경을 지니고 오래 전부터 산촌 문화를 일궈온 지역임
- 이 지역의 북쪽 일부는 소보가타무키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타무키야마(傾山, 1602m)산을 비롯하여 고요다케(五葉岳, 1569m)산과 야하즈다케(矢筈岳)산, 단스케다케(丹助岳)산 등의 숲은 산림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곳에는 모두 5개의 워킹로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세 종류의 당일 체험 플랜부터 온천을 즐기면서 문화체험까지 즐기는 2박 3일 플랜까지 구비
 - **돌담 마을 워킹코스** : 온천역에서 출발하여 돌담 마을 도가와까지 가는 8.5km 코스로 120분 정도 소요
 - **야하즈다케 워킹코스** : 하치노헤에서 나카가와를 연결하는 코스로 내내 산길을 가면서도 경사가 없이 평탄한 숲길을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림욕이 가능. 전체길이 7km이며 약 120분 소요
 - **미타테(見立) 산보도 코스** : 히노카게가와강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인 미타테 계곡의 일부를 정비하여 1979년에 만들어진 길에 조성된 코스. 길이는 3km에 왕복 60분 소요
 - **치유의 숲 워킹코스** : 정해진 길이 없으며, 넓은 산림공원 안을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때로는 정자에서 쉬면서 꽃을 보거나 자연 속에서 조깅 등이 가능. 3km로 60분 정도가 표준
 - **규슈자연보도 단스케·야하즈다케 코스** : 야하즈다케의 전망소에서 출발하여 단스케산 기슭에 자리한 캠프장까지 걷는 코스. 길이는 4km 약 90분 소요
- 히노카게초온천역은 사실 노선 폐지로 더 이상 열차가 지나지 않는 역으로, 이 역을 온천장으로 개조하고 역 구내에 열차를 이용한 간이 숙박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 산림테라피가이드, 산림테라피스트의 인정자격시험이 실시
- 이 마을에는 8명의 산림테라피가이드와 4명의 산림테라피스트가 있음

(3) 기타고초(北郷町) 산림테라피 기지

- 니치난시 기타고초는 일본 최고의 벚꽃 마을로 알려진 곳으로, 이 마을에는 환상적인 벚꽃과 온천 외에도 5중 폭포라는 뜻의 고주노다키를 중심으로 한 20여개의 폭포를 자랑하는 이노하에 계곡이 있음
- 이노하에 계곡은 폭포들 덕분에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고 울창한 나무들이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데다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이끼류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음
- 또한 이노하에강 주변에는 40m짜리 거목 등이 자라는 자연림이 있어 바위산과 조화를 이루는 이노하에 풍경림으로 지정되어 있음
- 기타고초는 두 개의 산림테라피 워킹로드를 가지고 있음
 - 먼저 이노하에 계곡 워킹로드는 왕복 6km, 표고차 120m의 코스로서 7개의 작은 다리와 크고 작은 폭포를 지나는 길임
 - 산책로에는 나무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특별히 걷는 맛을 느낄 수 있고 중간에 족욕이 가능한 온천도 있음
- 또하나의 코스인 하니초스 계곡 워킹로드는 거리 1.6km에 표고차는 18.5m로 거의 경사가 없으며 일부 길은 포장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인도 산림테라피를 즐길 수 있음
 - 이 길은 약 5만평방미터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인 하치노스 공원을 종단하는 것인데, 공원 안에는 노천온천이 완비된 통나무집 입대 별장도 있음

현지 구득 자료 외 참고문헌

히라노히데키·미야자키 요시후미·가가와 다카하데 외. 2009. 「산림테라피」. 전나무숲

규슈산림국 www.rinya.maff.go.jp/kyusyu

후쿠오카현 www.pref.fukuoka.lg.jp

미야자키현 www.pref.miyazaki.lg.jp

사사구리초 산림테라피기지 www.sasaguri-therapy.jp

기리시마시 www.city-kirishima.jp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 <http://www.fo-society.jp>

일본정부관광국

<http://www.welcometojapan.or.kr>

부록 1. 후쿠오카현 산림환경세 조례

(課税の目的)

第一條 縣は、縣民が享受している水源のかん養、土砂災害等防止、地球温暖化の防止等森林の有する公益的機能の重要性にかんがみ、荒廢した森林の再生等を図る施策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ため、福岡縣稅條例（昭和二十五年福岡縣條例第三十六号。以下「縣稅條例」という。）に定める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に關し、その特例として森林環境稅を課する。

(定義)

第二條 この條例において「森林環境稅」とは、次條及び第四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加算額をいう。

(個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の特例)

第三條 個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は、縣稅條例第二十條の六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條に定める額に五百円を加算した額とする。

(法人等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の特例)

第四條 法人等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は、縣稅條例第二十條の十二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條の表の上欄に掲げる法人等の區分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定める額に、当該額に百分の五を乗じて得た額を加算した額とする。

2 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おける縣稅條例第二十條の十二第二項の

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前項」とあるのは、「福岡縣森林環境税條例（平成十八年福岡縣條例第六十二号）第四條第一項」とする。

（基金への積立て）

第五條 知事は、森林環境税に係る収納額に相当する額から賦課徴収に要する費用を控除して得た額を、福岡縣森林環境税基金（福岡縣森林環境税基金條例（平成十八年福岡縣條例第六十四号）に基づく福岡縣森林環境税基金をいう。）に積み立てるものとする。

附 則

（施行期日）

1 この條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規則で定める日（以下「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

（平成一九年規則第六四号で平成二〇年四月一日から施行）

（個人の森林環境税に関する経過措置）

2 第三條の規定は、施行日の屬する年度以後の年度分の個人の縣民税の均等割の税率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の屬する年度前の年度分の個人の縣民税の均等割の税率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法人等の森林環境税に関する経過措置）

3 第四條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若しくは連結事業年度又は地方税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二十六号）第五十二條第二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の期間に係る法人等の縣民税の均等割の税率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開始した事業年度若しくは連結事業年度又は地方税法第五十二條第二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の期間に係る法人等の縣民税の均等割の税率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検討）

4 知事は、この條例の施行後五年を目途として、この條例の施行の状況、社會經濟情勢の推移等を勘案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條例の規定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부록 2. 후쿠오카현 죽림오너제도 서약서 예

竹林賃貸借契約書 (例)

貸主 (以下「甲」という。) と借主 (以下「乙」という。) と事務局 (以下「丙」という。) は、〇〇町竹林オーナー制度の趣旨に則って、次の條項に従って賃貸借契約を締結する。

(賃貸の目的)

第1條 甲は乙に對し、この契約書に基づき、別添實測図に記載する竹林をたけのこ生産及び竹材の採集を目的に賃貸する。

2 乙は、賃借した竹林を、前項の目的に沿うよう善意をもって効率的かつ適正に活用する。

3 竹林の全面伐採及び竹林内での火氣の使用及び土地の形狀変更は、行つてはならない。

(對象となる竹林の所在)

第2條 本、契約の對象となる竹林の所在は、以下のとおりとする。

〇〇町大字〇〇字〇〇番地 (第〇〇區畫)

(賃貸借の期間)

第3條 賃貸借期間は、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から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まで (〇年間) とする。

(利用料及び支拂方法)

第4條 乙は、毎年〇月〇〇日までに土地借地料及び管理手数料を合計した額 (以下「利用料」という。) 〇〇〇〇〇円を丙に支拂うものとする。

2 丙は、毎年〇月〇〇日までに利用料の中から管理手数料を差し引いた額 〇〇〇〇円を甲に支拂うものとする。

(中途解約)

第5條 本P契約は、甲、乙及び丙が協議の上、中途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乙が次の一つに該当した場合、甲と丙の協議の上、催告なくして直ちに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いずれの場合も既に納付された利用料は返還しないものとする。

(1) 使用料の支拂いを遅延するなどして、甲及び丙との信賴關係を損ねた場合。

(2) その他、本(契約に違反した場合。

(轉貸又は讓渡の禁止)

第6條 乙は、本契約に係わる權利又は義務を轉貸又は讓渡してはならない。

(土地の返還)

第7條 本v契約が、期間満了・解除・その他の事由により終了した時は、乙は直ちに甲に竹林を明け渡すものとする。なお、乙は、甲及び丙に對して立ち退き料その他一切の金 品の請求をしてはならない。

2 乙は、明け渡しの際、竹林内にゴミや動産等を放置してはならない。

(管理経費及び租税公課の負担)

第8条 竹林の維持管理に要する管理経費は、乙が負担する。

2 竹林の租税公課は、甲が負担する。

(丙の責務)

第9条 丙は、本契約において生じたトラブルについては、一切自らの責任におい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その他)

第10条 本契約に定めない事項及び疑義については、甲、乙及び丙協議の上別途定める。

本契約の締結を証するため、本書3通を作成し、甲、乙及び丙はこれを署名捺印し、各自1通を保有する。

平成 年 月 日

借主 (乙)	
〒 -	
住 所	
氏 名	印
電話番号	

事務局 (丙)	
〒 -	
住 所	
氏 名	印
電話番号	

貸主 (甲)	
〒 -	
住 所	
氏 名	印
電話番号	

부록 3. 미야자키현 산림환경세 조례

平成18年3月29日 條例第13号
改正平成18年3月31日 條例第41号
平成18年7月10日 條例第44号
平成22年12月14日 條例第48号

(趣旨)

第1條 この條例は、縣土の保全、水源のかん養等縣民が享受している森林の有する公益的な機能の重要性にかんがみ、縣及び縣民等が協働して取り組む森林環境の保全に關する施策の費用に充てるため、宮崎縣稅條例(昭和29年宮崎縣條例第19号。以下「縣稅條例」という。)に定める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の特例に關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定義)

第2條 この條例において「森林環境稅」とは、次條及び第四條の規定による加算額をいう。

(個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の特例)

第3條 平成18年度から平成27年度までの各年度分の個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は、縣稅條例第27條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條に定める額に500円を加算した額とする。

(法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の特例)

第4條 平成18年4月1日から平成28年3月31日までの間(以下この條

において「特例期間」という。)に開始する各事業年度若しくは各連結事業年度又は特例期間における地方稅法(昭和25年法律第226号。以下「法」という。)第52條第2項第4号の期間に係る法人の縣民稅の均等割の稅率は、縣稅條例第31條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條の表の上欄に掲げる法人の區分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定める額に、当該額に100分の5を乗じて得た額を加算した額とする。

(使途)

第5條 知事は、森林環境稅に係る收納額に相当する額から賦課徵收に要する費用を控除して得た額を、宮崎縣森林環境稅基金(宮崎縣森林環境稅基金條例(平成18年宮崎縣條例第23号)に基づく宮崎縣森林環境稅基金をいう。)に積み立てるものとする。

附則

(施行期日)

1 この條例は、平成18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平成18年度分の個人の縣民稅に限り、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125万円以下であり、かつ、平成17年1月1日現在において年齢65歳以上であった者(法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ない者を除く。)に係る第3條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條中「第27條」とあるのは「附則第39項」と、「同條」とあるのは「同項」と、「500円」とあるのは「100円」とする。

3 平成19年度分の個人の縣民稅に限り、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125万円以下であり、かつ、平成17年1月1日現在において年齢65歳以上であった者(法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ない者を除く。)に係る第3條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條中「第27條」とあるのは「附則第40項」と、「同條」とあるのは「同項」と、「500円」とあるのは「300円」とする。

부록 4. 미야자키현 산림종합이용시설

総合利用 2

総合利用 1

2 森林総合利用施設

(1) 明治百年記念の森 (行藤山県民の森)

趣 旨 等	昭和46年に「明治百年記念の森」として、県民の保健休養・自然愛護思想の向上・野生鳥獣の保護・青少年の情操教育を目的に設置した。
所 在 地	延岡市行藤町751番地の1
面 積	74ha
位 置	延岡駅から西に約8kmの位置にあり、海拔600~720mの祖母傾県立自然公園の地域内にある。
状 況	登山口の手前社付近は、大木の点在するうっそうとした天自然林で、やや急な登山道の途中には、行藤の滝や雄岳・雌岳の岸壁等があり、絶景に恵まれている。
森 相	森全体が天自然林で峰筋には樹齢60~70年生のアカツツ、ツガ等の針葉樹が点在し、その他は30~35年生のカン類、ツバキ、カエデ類、コナラ等の広葉樹が混成している。 また、林内には幅3m、深さ1m程度の溪流があり、その清流に映える四季の自然の姿は、休養林としてふさわしいものがある。
施 設	山小屋2棟、遊歩道
設置・管理等	宮崎県 (環境森林課、東臼杵農林振興局)

(2) 宮崎県ひなもり台県民ふれあいの森

趣 旨 等	昭和48年4月8日に「自然の保護と創出」をテーマに開催した第24回全国植樹祭を記念して、その跡地を県民の保健休養及び森林・林業とのふれあいの場として整備し、その後、アウトドアライフの指向の高まりのなかオートキャンプ場を拡充整備した。
所 在 地	小林市細野字山中之前5739番の14地
面 積	約310ha
位 置	小林駅から南南西に約8kmの位置にあり、海拔500~700mの霧島屋久国立公園の地域内にある。
森 相	大部分がスギやヒノキの人工林であり、除・間伐等の保育作業が必要な林分から90年生の林分まで幅広い林齢構成を成している。 谷筋や尾根等には、常緑広葉樹を主とする自然林が分布し、幹周りが3mを超えるアカガシ、スダジイ、タブノキ等の巨木が多数見られる。
施 設	森林学修展示館、森林体育館、集合訓練広場、野外学習展示園、自然観察歩道、野鳥の池などがある。 また、西日本最大級を誇る117サイトのオートキャンプ場を備えている。
設置・管理等	宮崎県 (環境森林課)、指定管理者: 公益社団法人宮崎県森林林業協会

(3) 宮崎県諸県県有林共に学ぶ森

趣 旨 等	「ふれあいの県民の森」整備構想の一環として、県民が森林の機能や林業の役割を学ぶための林業体験研修の場を平成9年度に諸県県有林内に整備した。
所 在 地	宮崎市高岡町紙屋赤木9番地1
面 積	約139ha
位 置	宮崎駅から西に約25kmの位置にあり、海拔140~200mの諸県県有林内にある。
森 相	スギやヒノキの人工林と広葉樹林が半々に分布しており、このうち人工林は、大半が40年生以上の林齢に達している。 また、広葉樹林は、ほとんどが天然生の2次林となっており、一部にクスギ、カン類の人工林が見られる。 なお、平成16年には、公有林では初めてSGEC「緑の循環認証会議」の森林認証を取得し、健全な森林の育成と環境保全に配慮した木材利用促進に努めている。
施 設	多目的管理棟、駐車場、研修広場、アクセス道
設置・管理等	宮崎県 (環境森林課)、指定管理者: 公益社団法人宮崎県森林林業協会

(4) 宮崎県川南遊学の森

趣 旨 等	森林への理解と関心を深め、県民参加の森林づくりを推進するため、森林環境教育のモデルフィールド及び森林とのふれあいの場として整備した。
所 在 地	児湯郡川南町大字川南字村上26689番地他
面 積	約23ha
位 置	川南町市街地の北西、約7km、町営村上牧場の隣接地に位置する。
森 相	スギ人工林、クスギを主体とする落葉樹林帯、シイ、カシ等の常緑樹林帯及び湿原植物群落から構成されている。 また、センダンやヤマザクラなどの大径木が見られるほか、南側溪流沿い一帯に、絶滅危惧種に指定されているナガバサンショウソウの群生地がある。
施 設	展望施設、あずまや、バイオトイレ、炭焼き体験施設、野鳥観察施設、林間歩道
設置・管理等	宮崎県 (自然環境課)、指定管理者: 公益社団法人宮崎県緑化推進機構

(5) 御池野鳥の森

趣 旨 等	霧島屋久国立公園内、御池周辺に全国初の「野鳥の森」として昭和48年6月10日開設された。野鳥に快適な環境を与え、その保護増殖を図るとともに、野鳥の生態を観察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よって、県民が豊かな情操を養い、野鳥に対する理解と認識を高め野鳥保護意識が向上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なお、昭和50年5月14日「全国野鳥のつどい」が野鳥の森及びえびの高原において開催された。
所 在 地	都城市御池町・西諸県郡高原町御池周辺
面 積	約115ha (林地102ha・池13ha)
位 置	高原町役場より国道223号を南西へ約8km、国設鳥獣保護区内にある。
施 設	観察小屋、あずまや、観察路、管理小屋、給水給餌施設、実のなる木の植栽、案内板など。
設置・管理等	環境省、九州森林管理局、宮崎県 (自然環境課)